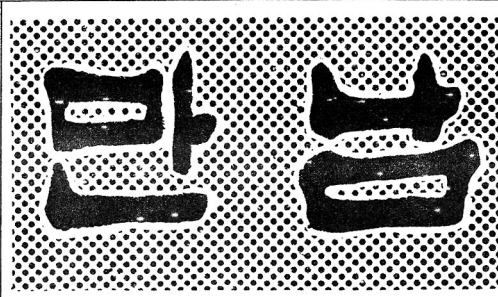


◆ 성 구 ◆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
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
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
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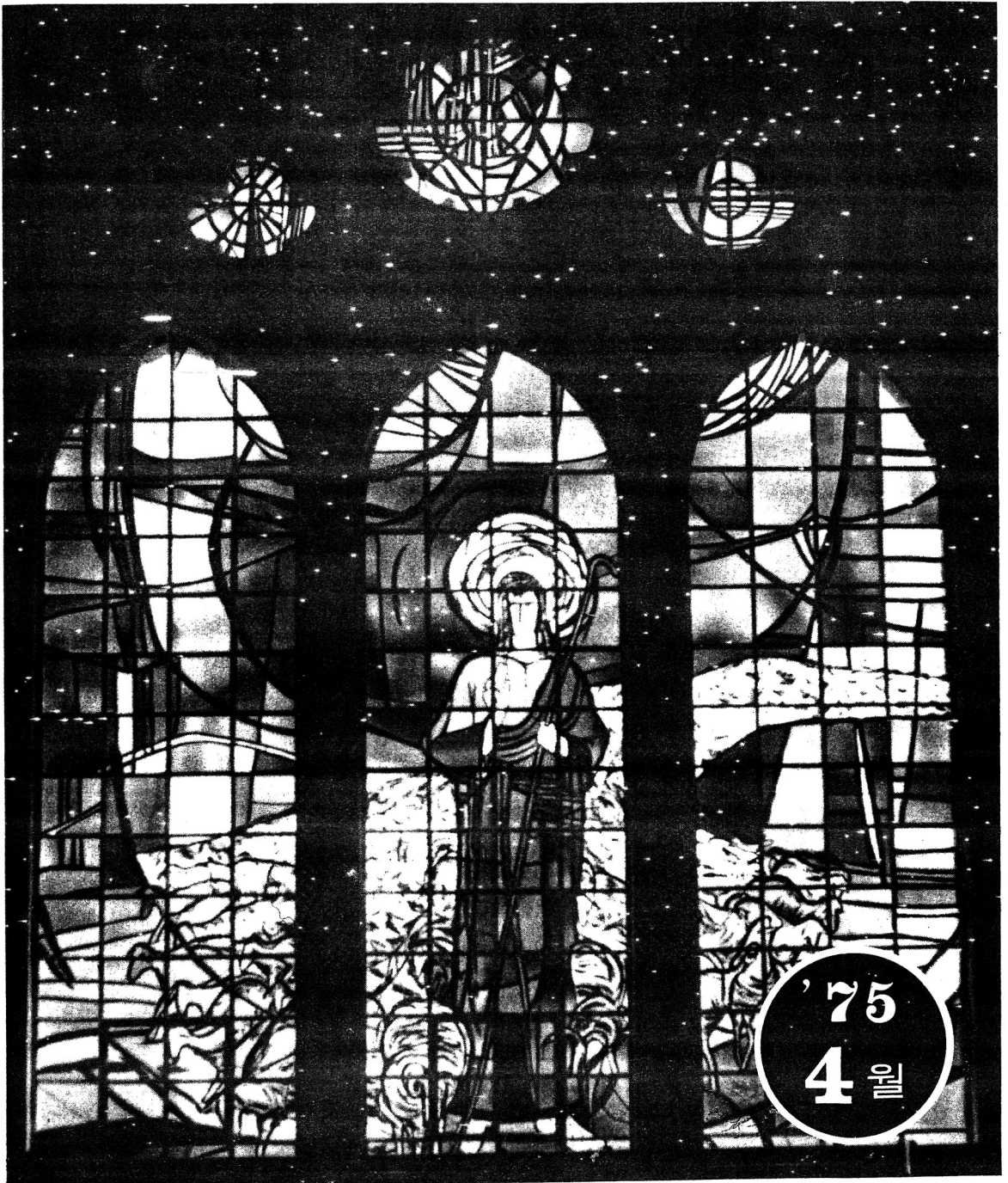


발행인 박 조 준
편집인 오 기 형

1975. 4. 27.

(제22호)

영락교회 평신도부 발행





박 조 준 (당 회 장)

“형제들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지내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오면 우리 조상들이 다 주를 아메 브로를 받았고 홍해 가운데를 지나왔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다 주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신령한 바위에 다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바위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의 거의 전부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으므로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산산히 흩어져져 되었습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으며 일어서서 춤을 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음란한 일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음란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부에 이만 삼천명이나 죽어 넘어갔습니다. 또 그들중 어떤 사람들처럼 주를 시험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주를 시험하던 사람들은 뱀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들 중 어떤 사람들처럼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멸망시키는 자에게서 멸망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생긴 것은 다른 사람들을 경고하기를 위하여요. 그것이 기록된 것은 세상 끝이 임박한 우리에 있어 있는 우리에게 훈계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11절)

빛나는 성지를 순례하면서 헤라의 아넌과 거기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고린도에 들렀던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리적인 조건이 그 당시에는 무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었으므로 경제적으로 꽤 유복한 생활을 할 수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자연히 여러가지 인간의 타락한 생활이 생기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교회에까지 끌려 들어오는 세상의 물결을 막기 위하여 이소라델의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 그들을 경고하였습니다. 지금의 고린도는 조그만 항구요 옛날 호화찬란했던 고린도의 거리는 볼 기쁨과 바다 그리고 무성한 풀만이 있는 곳으로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쇠의 값은 사방이라고 하는 말씀은 역사가 증거하여 주는 교훈이요 경고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통해 볼때 죄악이 관영한 개인이나 국가치고 말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망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도 악을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사람이 사라는 것은 역사의 교훈과 경고를 거울삼아 비극적인 일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새들은 덧을 놓고 거기에 먹이줄 뿌려 놓으면 날아 와서 먹다가 삽니다. 그 중에 삽니다 아니란 놈들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한참 있으면 사지에서 변했던 그 일을 다 잊어 버리고 또 먹이가 있는데 찾아 들어 또 삽니까요 합니다. 그래서 참새는 참새입니다. 사람은 참새는 아닙니다. 또 참새처럼 되어서도 안됩니다. 사람은 역사를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세대의 정세나 특히 인도지나의 사태는 남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메르가 이미 끝이 났고 월남의 티우 대통령이 하야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어서 눈물을 흘리며 내려 앉았고 월남도 미국의 특별한 조치가 없는 이상 그들의 앞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평론가의 말이 티우 원남 전대통령이 눈물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알았다고 하면서 그가 하야성명에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고 하였는데 그가 조금만 더 먼저 이 진리를 알았었다면 월남이 오늘 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였읍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경고 받고 교훈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대야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정과 부패 부조리와 불신공조가 만연한 나라치고 오래 서있는 나라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인도지나의 사태가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도 결코 예외 일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국제적인 위치에서 점점 고립

상태에 들어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것도 사실이며 그것도 25년전 한국전쟁 때처럼 일단 유사시에 한국을 적극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의식이 분명하지 못한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의 정세는 자유 우방의 경우에 있어서 유엔도 미국도 바라볼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느낌이 절실합니다. 정부방국도 이것을 의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괴뢰들은 ‘남조선의 인민혁명이 일어나면 적극 지원하여 잃었던 조국을 되찾아 주겠다’고 호부를 칩니다. 문자 그대로 불은 발 잔등에 떨어졌읍니다.

그러면, 우리민족은 절망입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역사의 경고를 교훈 삼아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는 슬기를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는 4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때야말로 한국의 기독교인이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건져야 할 때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부정과 부패 악적인 존재인 불신공조를 남의 일 보듯 할 것이 아니라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지고 기울여져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우 국가의 주인된 국민의 의무를 바로 감당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산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기독교인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미 생명을 바친 순교까지 작으한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내 놓고 싸우는데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온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로 뭉쳐야겠습니다. 뭉쳐야 삽니다. 다스의 의견의 차이는 잘라질 것이 아니라 나라 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뭉쳐야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를 이간 불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정신을 차리고 뭉쳐야겠고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순교자적 정신을 가지고 사회풍토개조를 위해서 헌신해야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기독교인은 이 땅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뭉쳐서 생명을 걸고 싸울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영락교회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을 깨닫고 온 교우가 불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온 교우는 하나로 뭉쳐야겠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야겠습니다. 우선 나라를 건져야겠습니다.

본전에 착색유리 비치

본당 2층에 위치한 정면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착색 유리)가 설치 되었다.

정 리숙 권찰님과 김 명순 집사님께서 기증한 이 스테인드 글라스는 양치는 복자를 반 우상화로 표현한 작품이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특징은 자연 광선에서만 선명하게 그 색이 나타나며 야간 조명 아래서는 그 빛깔이 나타나지 않으며 실내에서 보아야 광선을 받아 원래의 색깔을 볼 수가 있다.

서독의 뉘셀돌프에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제작 회사에서 직접 제작해 온 이 유리는 특수 화학 처리된 것으로 그 색이 영구적이며 우리 나라에서는 성공회 외에 몇 곳에 비치되어 있는데 국내에 비치된 것으로는 그 규모가 최대의 규모라고 한다.

스테인드 글라스의 설치된 모자이크의 형식과 같아, 창문 하나에 유리를 끼우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바뀌는 듯마

남으로 접착을 시켜 그림을 연결시킨다. 따라서 본당에 비치된 스테인드 글라스는 몇 백장의 유리를 연결시켜서 된 그림이다.

제작은 독일에서 작년에 6개월 동안 걸쳐서 완료되어 금년 2월 초에 한국에 도착 되었는데 그 중 8매의 유리가 운반 도중에 파손되어 독일에 다시 공수하여 재제작되어서 4월 16일에야 공사의 완료를 보았다.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기증해주신 정 리숙 권찰님과 김 명순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٢٠٢

(5)

대학생회 부활절 신앙강좌

- 천 오백여 대학생 모여 성료 -



■ 신앙 강좌중 한 장면 ■

지난 3월 27일과 28일 대학생회 주최 부활절 행사로서 「부활과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장로교 신학대학의 맹용길 박사와 연세대학교의 이규호 교수, 김찬국 교수, 김동진 교수의 의미 깊은 부활절 특별 강연회가 있었다.

강연은 봉사관 하층에서 있었는데 이들 동안 천 오백명의 인원이 참석했으며 이 중에는 타교회 대학생과 경신도들도 있었다.

첫날 맹용길 박사는 부활과 기독교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정점을 이루고 있고 죽음의 엄매임으로 부터의 해방임과 동시에 죽음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섬기라는 책임을 요청하는 것

이라 했다. 또한 기독교의 책임은 크리스찬의 자유가 섬기는 자유임을 보여주고 기독교인은 화해의 직책을 수행하여 세상을 변형시켜 나아가서 봉사하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규호 박사는 부활과 사회정의라는 주제로 예수의 부활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약속하는 것이고, 새로운 인간의 탄생을 보증하는 것이라 했다. 또한 우리 기독교인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냉정한 이성을 통해서 참여해야 하며 그 사고 방식은 비약과 실존적인 결단이 중요한 문제라 하였다.

둘째날 김찬국 교수는 부활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는데 부활의 의미는 진리의 부활과 정의의 부활이라면서 역사의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탈출구였다고 했다.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부활 그 자체가 큰 약속이라 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진 교수는 그날 강연에 온 무신론자를 위해 부활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였다. 김교수는 자신이 한국 기독교인임을 자부하면서 인간의 가치는 예수의 부활에 있고, 이 부활절을 계기로 기독교인에게 성서를 가까이 하는 생활을 가지라면서 부활의 희망을 알고 민중을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의 자세가 되길바란다고 하였다.

□ 대학생회 4. 19탑 찾아 기념예배

대학생회에서는 지난 4월 19일에 4. 19 15주년을 맞아 30여명의 회원이 4. 19의 정신을 되새기기 위하여 수유리에 위치한 4. 19 기념탑에서 기념 예배를 거졌다. 기념예배 중 그 당시의 부정 부패와 사회악을 그대로 방관하지 않고 고귀한 피를 흘려 정의를 위해 싸웠던 그들을 회상하며 어두운 현실에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다짐하는 회원의 기원문 낭독이 있었으며 이사야서를 통한 김서민 전도사의 메시지가 있었다.

미리 준비한 흰 카네이션을 피워 한 사람이 한송이씩 헌화하였으며 대표로 회장과 부회장이 분향을 하였다.

예배 후 회원들은 기념탑 뒤에 위치한 4. 19 학생 묘지와 봉안소를 찾았다.

❖ 보린원 소식 ❖

보린원에서는 도움을 주시는 많은 교우분들 중에서 특히 관심을 보여 주시는 두 분의 수고에 감사한다고 한다.

그 두 분이란 후암동에 위치한 조 소아과 원장님인 조 경숙씨와 보린원 후원 회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신 최춘식 사장님이다.

조 경숙씨는 1974년 11월 6일 자원해서 보린원 지정 병원으로 보린원생 전원의 건강 진단 카드 작성과 영양제등 약품을 보내 주시며 지난 겨울에는 왕진 차 들르셨다가 침구를 보시고는 일부 개선을 위해 壹拾萬원을 성탄절에 보내 주셨고 부활절에도 금일봉을 보내 주셨다. 특히 장녀인 김 보영양은 고등부 반주자로 수고하면서 보린원 합창단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다.

최 춘식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의 진학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하여 76년도 졸업 예정자 중 중실 교고 3학년 홍 성준군을 장학생으로 선정하여 이미 일하기 분납금 壹拾萬원을 보내 주셨다. 보린원에는 최 사장님과 같은 독지자의 따뜻한 손길을 갈망하는 중실교고 3년 박 호준(신학 대학 지망), 보성여고 3년 김 혜경(사범 대학 지망)의 두 학생이 있다. 이들에게도 배움의 길이 열리다면 큰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리라고 믿는다고 하며 교우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한다.

그 외에 최 창규집사와 이 영옥양이 약혼 기념으로 십자가상을 보내 주셨다.

교역자 동정

■ 한 경직 원로목사 귀국

지난 1월 13일에 천명회 창립 25주년 식전에 참석키 위해 노미하셨다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 전도 세미나에 강사로 수고하시던 중 지난 4월 23일 오후 1시 30분에 세미나를 마치고 귀국하셨다.

■ 박 조준 당회장 목사 대전에

박 조준 목사님은 지난 4월 14일 저녁에 대전에서 열렸던 평신도회 전국 연합회 순회에 배를 인도하시러 대전에 다녀오셨다.

■ 이성재 목사 싱가포르에

이 성재 목사님은 한 경직 목사님께서 강사로 참석하고 계신 국제 전도 세미나에 수감하기 위하여 6주일 예정으로 싱가포르에 가셨다.



김 창 식 목사

■ 김 창식목사 부목사로 부임

본적이 평안북도이신 김 목사님은 대광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숭진 대학을 마친 후 대한 예수교 장로회 신학 대학을 나오셨다.

본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영락 중 상업 고등학교 교목으로 근무하셨고 새문안 교회 선교 담당 부목사로 시무 중 부임하셨다.

가족으로는 사모님과 아들 삼형제가 있다.

부활절 맞아 헌혈 캠페인

- 청년협의회 주관으로 -



헌혈하는 광경

지난 3월 16일(주일)과 3월 21일(수요일)의 이틀 동안 부활 주일을 맞아 주님의 피 흘리심에 보답하기 위한 헌혈이 청년 협의회의 주최로 있었다.

서울 적십자 혈액원에서 나와서 한 채혈에 많은 교우들이 참석코자 하였으나(특히 노년층) 대부분 신체 검사에서 탈락되어 참가한 인일수는 99명이었다.

우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혈액의 90%는 매혈이고 10% 가량이 헌혈이라고 한다. 외국에서는 병원에서 쓰이는 혈액의 거의 다가 헌혈이며 그들은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인 헌혈을 한다고 한다. 헌혈은 우리 몸의 혈액의 순화에 무척 좋으며 우리가 보통하는 헌혈의 양은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헌혈을 할 때에는 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헌혈 연령은 만 16세 이상 부터 65세 이하이며 남자는 50kg 이상이어야 하며 여자는 45kg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여자는 생리 후 일주일일 지나야만 할 수 있다. 그외에 전염병을 앓았던 사람이나 혈액으로 전염될 수 있는 병을 지닌 사람과 간염을 앓고 있는 사람 또 수술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및 해모글로빈 함유량이 미달인 사람은 헌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주의사항을 명기하여 다음 헌혈의 기회에는 더욱 많은 교우들의 참여를 바란다.

성서 히브리어 초급반 개강



성서 원어부는 4월 3일 오후 7시에 이 성재 목사님을 모시고 25명의 반원이 모인 가운데 성서 히브리어 초급반 개강 예배를 보았다.

성서 히브리어 초급반은 매주 목요일에 2시간씩 공부하고 있으며 강사로는 장로직 신학 대학 교수이신 배 제민 목사님께서 수교하여 주신다.

권찰강좌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선교관에서 권찰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택진 목사의 강좌가 있었다.

임 목사님의 "지혜있고 신실한 청지기"란 주제의 강좌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교육부 부활주일 연합행사



교육부 연합예배 광경

교육부는 3월 30일 오전 8시 30분 연합 행사를 다. 교육부 산하의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진체가 참석한 이 행사는 1부에 각 부 예배를 본 후 2부에는 합동 예배로, 교육부 담당 목사이신 권 용평 목사님의 메시지가 있었고 3부에는 반 담임 교사들과 반 학생들이 한팀이 되어 배정된 전도 구역에 축호 전도를 나갔다.

행사 준비 위원장 장 윤철 교육부 부장님의 인도 아래 진행된 이날 부별 연합 예배는 영아부와 유치부가 유치원실에서, 유년부는 봉사관 하층, 초등부는 교육관 4층, 중등부는 선교관, 고등부는 본당에서 각각 예배를 드린후 찬송 133장을 부르며 교회 교정에 전체 집결을 하였다. 이어서 권 용평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부활절 메시지 낭독을 학생과 교사 전원이 복창을 한후 박 조준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날 각부의 축호 전도 지역은 다음과 같다.

유년부: 인현동, 저동, 초동, 오장동, 예판동, 충두로3, 4, 5가, 광희동

초등부: 남산동, 예장동, 회현동, 필동, 주자동, 남학동, 목정동, 장충동, 쌍림동

중등부: 명동, 충무로1, 2가, 소공동, 북창동, 다동, 무교동, 남장동, 양동, 도동, 서울역일대

고등부: 삼각동, 수하동, 장교동, 수교동, 입정동, 산림동, 주교동, 예지동, 장사동, 관수동, 관철동, 서린동, 청진동, 수송동, 중학동, 관훈동, 전지동, 낙원동, 익선동, 문리동, 안국동, 가회동, 계동, 전서동, 삼청동.

전도지는 5종류로 5만매를 준비하여 다른 교패가 부족되어 있는 집에는 전도지를 넘지 않고 그외의 집에는 인사를 공손히 드린 후 영락교회 학생임을 알리면서 교회 출석을 권하였다. 그외에 거리의 학생들에게도 전도지를 전달하였다.



축호 전도하는 모습

- 고등부 신앙강좌 -

4월 20일 고등부는 김 중남 목사님(현 신일고교 교목)을 모시고 신앙과 학문이라는 주제의 강좌를 가졌다.

200여명의 학생이 참석한 이 강좌에서 김 목사님은 신앙과 학문의 관계는, 신앙은 학문의 자세에서 구체적으로 표현 묘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앙 없는 학문과 학문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으며 이 둘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날 참석한 학생들은 학교 공부인가 교회의 생활인가 하는 새로운 조화에 대하여 진지한 질문과 응답으로 현실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의 길을 모색하였다.

농아부 소식

- 3월 1일 교사 1일 기도회를 효자산 기도원에서 개최하여 은혜를 받음.
2일 정기제직회, 교사회, 평신도회임원회.
9일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학년별 자치회의를 가짐.
16일 교회학교 초등반사를 중심으로 교재 연구회를 가짐. 중·고등부 학생회에서 각부별 토의회를 가짐.
박 운산 목사님의 회갑을 맞아 축하 예배를 드림.
23일 교사회의 성례문답
30일 부활 주일을 맞아 축하 행사로 초등부 주최로 성극을 발표함.
세례 : 7명, 학습 : 14명, 유아세례 : 2명
- 4월 1일 농아부가 교회로 승격.
5일 중·고등부에서 신입생 환영회를 영락 기도원에서 개최.
15일 춘계 대심방 시작 (120세대 예정)
20일 농아교회 운영위원회 모임.
27일 지방에 흩어져 있는 교우들과 직장 관계로 주일 출석에 어려운 교우들을 위한 월간지 "에바다"를 발간
매주 수요일 초등부 1시간 학교
매주 토요일 학생회에서 성경 공부와 친교의 모임인 코이노니아회를 시작함.

| 부 | 서 | 계 |
|---------|---|------|
| 주일 집회 | | 317명 |
| 주일 집회 | | 313명 |
| 주간 학교 | | 15명 |
| 주간 학교 | | 21명 |
| 코이노니아 회 | | 17명 |

심방부 소식

심방부에서는 지난 2월 중에 권찰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평가 및 앞으로의 계획 수립에 재료를 하기 위하여 지난 3월 심방 준비 회의시에 설문을 배부하여 이에 의견을 다음과 같이 집계하였다.

설 문

응문자수 %

1. 2월 중에 실시한 훈련을 받은후

- ① 나의 직책에 대한 책임을 (1) 절실히 느꼈다. 610 91%
(2) 별로 느낀바 없다 41 6%
② 우리 구역은 주간 심방을 (1) 꼭 실시한다 509 76%
(2) 아직 못한다 137 20%
③ 이사가는 세대에 대한 주 소 변경보고를 내는 일에 (1) 적극 협력한다 523 78%
(2) 적극성이 없다 94 14%

2. 앞으로 훈련에 대하여

- ① 권찰훈련은 (1) 매우 좋다 464 69%
(2) 괜찮다 192 27%
(3) 나쁘다 12 107%
② 훈련은 앞으로 계속한다 (1) 가 597 89%
(2) 부 47 7%
③ 훈련 장소는 어느편이 좋은가 (1) 가정 29 4%
(2) 교회 626 93%
④ 장소는 어느 편이 좋은가 (1) 교구별 336 50%
(2) 전체 305 45%

교육부 소식

- 3월 평균 출석 2,673명 헌금 1,268,449 (부활헌금 포함)
영 아 부 : 4월 일 성경암송, 생일축하, 신입생환영.
유 치 부 : 4월 6일 신입생환영, 생일축하.
유 년 부 : 4월 6일 교사 월례회, 교사 사진촬영.
4월 13일 교사 학년회, 교사월보 "베들레헴" 2호 발행.
4월 20일 환등.
4월 27일
초 등 부 : 4월 6일 임사회, 분과위원장 연석회의.
13일 전체교사회의, 어린이 대의원 임원회.
20일 신입생 환영회. 4,5,6학년 여자 야외예배, 기도원에서.
27일 교사월례회
중 등 부 : 4월 6일 각분과 위원회 월례회. 봄 씨앗 모으기. 교사 대심방. 학원 전도대조직.
13일 학생회 각분과 월례회.
19일 학원복음화 전도대 (보성여중전도)
20일 2학년 주관예배. 저녁-"기독교 이단 종파의 실재"
27일 학원교사회 및 반장연석회의
고 등 부 : 6일 실행 위원회
13일 전체교사회의. 임원연수회, 영화시사회 "영락 30년사"
차남선 권사님 : 캐비넷 기증
조신근 권사님 : 책장기증
20일 신앙강좌. "신앙과 학문"
강사 : 김중남 목사
27일 1,3 학년 야외예배. 장소 : 영락기도원
주간 학교 : 5일 교사 기도회 (11명 참석)
27일 전체 기념촬영.
교사양성부 : 94명의 학생중 74명의 교사후보생들이 "성서개설" "기독교 교육원리"를 공부함.
어머니교실 : 박종무 장로. 주선애 권사님을 모시고 39명의 어머니들께서 "공중보건, 모자보건" "새사람의 원리"를 공부함.
연합 사업 : 4월 7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14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20일 교사 조사 실시.
21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27일 교육부 지도자회의. 교육부 브리핑차트 완료.

② 훈련시간은

- (1) 권찰 기도회등 모임시간을이용 479 74%
(2) 따로 모인다 138 20%

권찰 이동 현황 1975년 3월 31일 부

| 교구 | 구 | 구역 | 해 임 | | 보 임 | |
|----|-----|----|-----|-------|-----|-------|
| | | | 직 위 | 이 름 | 직 위 | 이 름 |
| 1 | 성 동 | 3 | 권 찰 | 정 인 숙 | 권 찰 | 장 신 영 |
| 1 | 성 동 | 8 | 권 찰 | 장 상 욱 | 권 찰 | 장 실 자 |
| 2 | 영등포 | 5 | | | 권 찰 | 백 은 순 |
| 2 | 영등포 | 16 | 권 찰 | 채 혜 명 | 권 찰 | 우 문 익 |
| 3 | 용 산 | 1 | 구역장 | 한 혜 주 | 구역장 | 김 영 회 |
| 3 | 용 산 | 8 | 권 찰 | 김 기 은 | 권 찰 | 정 복 란 |
| 4 | 서대문 | 9 | 구역장 | 방 지 연 | 구역장 | 김 봉 원 |
| 4 | 서대문 | 25 | 권 찰 | 임 봉 원 | 권 찰 | 신 명 자 |
| 4 | 서대문 | 30 | 구역장 | 김 회 태 | 구역장 | 전 소 자 |
| | | | | | 김 창 | 성 |

창립 30 년 기념사업 헌금참가자 명단

— 1975년 4월 22일 현재 —

※ ()안은 동일 가족임

2백만원

김치복

1백만원

金德潤 金信權

5십만원

高祥又 金동권 李星辰

(金主敏 洪貞任)

장덕애(정만현 유영희)

(최형은 정혜숙)

4십만원

오경자

3십만원

康龍泰 金旭煥 崔基彬

(吳制道 韓석환) 한민섭

許新新 洪형균 무명씨

무명씨 金元弼

최영준 남세숙

25만원

李圭根

20만원

고영숙 金仙花 김시환

김정일 김소희 金載杰

장찬일 김치창 박조준

(오창한 김장선) 유영희

이만섭 김정산 최영철

전경선 정상호 조남옥

趙英子(차준도 강용진)

최명옥 崔賢哲 안석순

한정희 이창로 조상은

김학규 정우균

16만원

(鄭信玉 全東文 朱鍾淑)

15만원

(이윤철 임성삼) 무명씨

金光浩(김성년 이상오)

홍복수

13만원

洪宇信 金基德

12만원 이동범

11만원(김병택 장순천)

박문진 이기장

10만원

장순수 강일섭 김병은

(姜學周 金慶玉) 김진모

김성기 김경희 김수철

김성기(김진건 장대순)

김연복 김명도 김영자

김승선 김경선 金淨顯

김형로(경세호 송태욱)

권순진 박윤환 朴賢洙

(박종옥 이등순) 변계단

(박대익 정미정) 배신일

서영희 신봉현 신원관

양문과 여귀옥 오영민

양영문 劉一平 李奉權

(이 준 최현옥) 이창철

이창호(林東燮 李鮮海)

(張源河 金永逸) 장일화

장지현 전순희 田伊京

鄭京姬 鄭근수 정용순

曹貞姬 車鴻進 최태호

(최순정 장순애) 韓敬淑

한경식 현윤경 洪永順

황종갑 무명씨 김종섭

이창진(정규강 박신화)

백문국 문성호 무명현

윤문국 임창제 정세현

양에삼 박영만

8만원

(김용재, 윤현, 송순, 백경자)

김용재 金桂鎬 전근순

박용재

7만5천원

최 현

7만원

金炳奎 金鍾仁 金順煥

박희진 박성희 김병각

李元燮 장윤철 홍순우

6만원

金演鎭 金桂善 김재홍

(매덕성 김호경) 박세화

(박창희 장일화) 우현옥

이석재 李石在 池寬淳

최교선(김형박 장영숙)

송성순 장경택 박영숙

이근하 지성환 김문열

이정숙

5만5천원

韓政賢

5만1천5백원

김현필

5만원

강옥희 康龍鎭

공 남 康龍鎭

김순은 김경선 김명훈

金貴烈 김석환 김진호

김정무 김세정 김여달

김영호 김정숙 김중현

김민복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金民福 김재훈 김재홍

윤지호 李慶三 이경숙

李敬鎭 李大英 金順和

(李 英 이윤숙) 이영배

이은희 이영숙 이태복

이현옥 이광복 윤순현

임신재 임광본 윤순현

임인조 임광본 윤순현

장봉근 장영숙 鄭元三

전순희 장영숙 鄭元三

조은연 장영숙 鄭元三

차순환 차영숙 鄭元三

車順七 차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최지호 최영숙 鄭元三

장안나 정용서 장인봉

전선애 정갑록 정상봉

(정봉주 여정화) 정인열

정지근 정영숙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정영숙 정갑록 정창로

성경통신학교

- 자격:** 본 교회 등록된 교인이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으며 아무때고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신 때부터 빠짐없이 답안지를 제출하십시오.
- 방법:** ① 답안지에 기록사항과 답을 똑똑히 기록하십시오.
② 답안지를 잘라서 매 주일 본전 올라가는 총계 옆의 통신학교함에 넣어 주세요.
③ 접수된 답안지를 채점하여 본인에게 보내 드립니다.
④ **지나히 분의 문제**지는 평신도부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졸업:** ① 신·구약별로 나누어 빠짐없이 좋은 성적으로 마치시면 졸업증서를 드립니다.
② 졸업식은 저녁예배시에 성대히 가집니다.

사도행전 연구

- 본 서의 기자는 1장 1,2절로 미루어 보아 () 인을 알 수 있습니다.
-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 일만에 승천했습니다.
- 가롯유다 대신 사도로 임명된 자는 ()입니다.
- 2장 23절에 나오는 “법없는 사람”을 3장 11~17절에서 찾아보면 () 사람들과 (), 또 유대의 () 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 2장에서 4장 사이에는 베드로의 설교가 세 번 나옵니다. 각 장절을 쓰십시오.
① () 장 () 절에서 () 절까지
② () 장 () 절에서 () 절까지
③ () 장 () 절에서 () 절까지
-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춘 사람은 ()와 ()입니다.
-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은 ()와 ()들이 ()에게 한 말입니다.

- 처음 택한 7 집사의 이름은 스데반, 빌립, (), (), 디몬, 바베나, ()입니다.
- 우리 기독교회사상 첫 순교자는 ()입니다.
-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에서 그는 ()을 가르키며, 사마리아 성에 전도한 사람은 ()이며, 성령을 돈을 주고 살려던 사람은 ()고, 빌립에게 세례받은 내시의 나라이름은 ()며 또 그 여왕이름은 ()입니다.
-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추천한 사람은 ()입니다.
-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선교사를 파송할 때 세움받은 두 사람은 ()와 ()입니다.
- 우리 믿는 자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처음으로 일컬어진 이름이 무엇입니까?
- 루스드라의 무리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라하고 바울은 말을 잘하는 자임으로 ()라고 하였읍니다.
- 15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최초로 열린 공의회의 기록이 나옵니다. 이 공의회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주장 때문에 열린 것으로서 (), 바나바, 바울, ()의 발언과 보고가 있었읍니다.
-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어 머리를 깎은 곳은 ()입니다.
-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의 집에 유하였고 고린도에서는 ()와 ()의 집에서 우거하였고 다음에는 ()라하는 사람의 집에 우거하였읍니다.
- 에베소에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모든 사람앞에서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이나 되었읍니다.
- 창에 걸터앉아 줄다가 떨어진 드로아 청년의 이름은 ()입니다.
- 바울은 길리기아의 ()에서 출생하였으며 () 문하에서 배웠읍니다.
-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고 하고 사두개인들은 ()고 함으로 서로 다투었읍니다.
- 바울이 로마로 갈때 탄 배이름은 ()이고 섬가운 데로서 일어난 광풍의 이름은 ()이며 배에 탄 사람은 모두 ()명이고 바울일행이 구원을 얻은 후에 안죽 그 섬이름은 ()였읍니다.

사도행전 연구

| 구 | 제 | 구역 | 남·녀 |
|---|-----------|-------|-----|
| ① | () | () | () |
| ② | () 일 | ⑧ () | () |
| ③ | () | () | () |
| ④ | () | () | () |
| | () | ⑨ () | () |
| | () | ⑩ () | () |
| ⑤ | (장 절~ 절) | () | () |
| | (장 절~ 절) | () | () |
| | (장 절~ 절) | () | () |
| ⑥ | () | () | () |
| | () | ⑪ () | () |
| ⑦ | () | ⑫ () | () |
| | () | () | () |

| 성명 | (나이) | 세) |
|-------|-------|-----|
| 주소 | | |
| ⑬ () | ⑳ () | () |
| ⑭ () | () | () |
| () | ㉑ () | () |
| ⑮ () | () | () |
| () | ㉒ () | () |
| () | () | () |
| ⑯ () | () | () |
| 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⑱ () | () | () |
| ⑲ () | () | () |

*답안지만 잘라서 본전 올라가는 총계 옆의 통신학교함에 넣어 주세요.